

전남,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에 두팔 걷었다

전남행복지역화폐 올해 2534억 할인을 최대 10% 넘지 않도록 월 구매한도 70만, 특별기간 100만원

전남도가 이른바 상품권깡과 페이퍼 가맹점 차단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5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광역·기초의회는 유신잔재 논란이 있는 새마을기를 철거한 가운데 15일 전남도청에는 청사 앞 새마을기가 걸려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원, 특별 기간 100만 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한 일부 가맹점들의 '상품권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전남도의

회 조옥현의원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는 페이퍼 가맹점이 양산되지 않도록 상인회나 이·통장의 사업장 실체를 확인해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한다"면서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부작용 근절 마련을 위해 일부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모바일 등으로의 발행종류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쓰고 싶은 지역화폐, 바르고 건전한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화순군청

화순군

故홍남순 생가 복원한다

화순군은 '인권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중인사들이 기다려온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총사업비 2억6000만 원을 들여 목조 초가 형태의 생가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에 있는 홍 변호사의 생가터에 안채와 문간채 등 84㎡ 규모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마당과 담장 등을 정비했다. 생가는 정갈하고 예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고 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주시 유출 지하수로 세척 '클린로드시스템'

문화전당~금남로 4가역 등 2곳 비산먼지 제거·도심 열섬 해소 기대

광주 금남로와 상무대로에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0.52km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광주송정역 3.5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의 2개 구간을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놓은 살수 노즐을 통해 유

출 지하수를 분사해 도로를 세척하게 된다. 특히, 극락교~광주송정역 구간은 클린로드 설치 단일구간으로 전국 최장 구간이다.

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시작점에 클린로드 시스템 가동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자동제어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상관측장비도 설치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에 분사된 유출 지하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 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도심지역 폭염 저감과 시민 편의를 위해 문화전당~금남로공원 350m 구간에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를 이용, 미세 물입자를 고압으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10℃ 가량 낮추는 쿨링포그 시스템도 설치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가로등 형태로 LED조명도 설치돼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시청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균형발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가속'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 호평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3월에 상정돼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분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생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사업에 대해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만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담양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장성군

설맞이 전통시장 행사 '푸짐'

장성군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오는 14일 오전 11시 황룡시장에서 연다.

황룡시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주민과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황룡시장 상인회(회장 정재우)에서 마련한 떡과 장성군이 환경보호 동참을 위해 제공하는 장바구니가 배부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원하는 '황금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황룡시장 1964년 개장한 장성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육류와 미곡, 생선, 건어물, 채소, 잡화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41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3일 (월)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5 ~ 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7 | 해질 / 17:35

연천 -9/0, 동두천 -9/1, 가평 -9/1, 양평 -6/2, 용인 -3/1, 평택 -5/1, 수원 -3/1, 인천 -4/0, 파주 -9/1, 서울 -5/1, 백령도 -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